

제54대 김영배 포천경찰서장 就任

“조직원의 인화·단결을 통한 주민만족 치안 강조”

포천경찰서에 김영배 서장이 제 54대 서장으로 취임해 포천시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

지난 18일 취임한 신임 김 서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2년 10월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강남서 경비과장, 경찰청 장비담당, 서울청 방범지도관, 강원 평창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기본에 충실한 경찰상' ▶ 포천시민을 고객으로, 동반자로서, 주인으로 생각하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상' ▶ 조직내부의 '인화단결과 자체사고 방지'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포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포천경찰이 되기를 당부했다.

김 서장은 30년의 오랜 경찰생활 동안 경무·경비·교통·정보 등



포천경찰서 김영배 서장이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했다.

다양한 업무를 두루 역임해 경찰업 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어, 앞으로 포천 치안에 거는 기대 가 크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를 두 고 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 으로 알려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광아스콘 사태 점차 악화 조짐

선단동 16개 통장협의회 주민대책위 동참 밝혀

지난 6월30일 영광아스콘 측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포천시 선단동 16개 통장들이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점차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310호 7월9일자 1면)

선단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5일 모 음식점에서 7월중 통장회의를 갖고 동교동 558-27번지에 허가 난 아스콘 공장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선단동 통장협의회가 회의 직후 발표한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선언문'에 의하면 "포천시 동교동 558-27번지 일대 주소지에 아스콘 공장이 설립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선단동 전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 재산권을 무참히 침해 당한다"고 말하고 "선단동 지역 대표인 16개통 통장전원은 동교 2동 대책위원회와 동조하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아스콘 제조업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16개 통장들이 아스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선언문'과 함께 주민서명을 받아 포천시에 제출하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이같은 내용을 첨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목회단상

希望(희망)의 삶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급변하는 100년만의 더위가 올 것이라고 한다. 그 더위와 함께 반갑지 않은 것이 불쾌지수다. 나른하고 무기력한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보다 克勤(극서)의 避暑法(피서법)은 希望(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희망의 꿈을 안고 차분하게 現實(현실)로 바꾸어가야 하겠다. 희망은 사전에 보면 '마음에 욕구하는 어떤것에 대한 기대'라고 나와 있다. 희망은 망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成功(성공) 이전에 취하는 행동의 준비 자세이다. 세기적 聖賢(성자)이라고 할 수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책 '나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일생을 통하여 希望(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희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경도 이기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마땅히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릇된 희망의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 잘못된 희망이란 무엇보다 환상적 희망과 사치스러운 희망이다. 솔론이라는 사람은 "환상적 희망을 가리켜 헛된 양치 속의 넣어둔 덧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우울한 망상이라는 것이다. 희망은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실존이라는 것이다.

희미한 희망은 우리의 運命(운명)을 닦기 쉽다. 희망은 嘆息(탄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사치스러운 희망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貪慾(탐욕)을 동반한다. 희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런데 사치스러운 희망은 어딘지 불안하고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고로 희망을 갖는다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보다 창조적이요 멋진 꿈을 소탈하게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품었으면 이 더위에 克勤(극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運命(운명)을 開拓(개척)하는 希望(희망)의 贊歌(찬가)를 부르면서 피서를 떠나 보면 좋겠다. 유명한 詩人 屠鵬(투펑) 로우스의 시중에 人生讚歌(인생찬가)가 있다. 그 시의 시작은 이렇게 읊는다. "인생이여 제발 목 매인 송아지가 되지 마시오. 세계의 넓은 전장에서 인생의 아령장에서 목매인 송아지처럼 질질 쫓기지 말고 투쟁하는 영

웅이" 그야말로 희망은 運命(운명)을 開拓(개척)해 가는 불도저같은 힘이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꿈의 용솟음이다. 차분하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지만 결코 서들거나 담비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또 기다릴 줄 아는 修養(수양)이 있다. 주어진다는 善境(선경)과 환경에서 잘 適應(적응)하게 대처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자연속에서 思慕(사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괴로움을 품지 않고 정확한 승리는 勝利(승리)를 가져다준다. 問題(문제)에 봉착하면 희망을 거두거나 놓지를 말아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희망을 거창하게 가졌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경우다 아! 그렇 될 때 되면 울 여름은 어느 여름보다 더욱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지게 요 리하면서 지내는 사람에게 울 여름은 勝利(승리)의 추억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忍耐(인내)의 사람이 되고 肯頂(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울 여름 克勤(극서)의 피서는 희망의 꿈을 안고 떠나보자.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障礙(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사노라면 분명 成功(성공)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2장1-2: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競走(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문의) 031-532-2489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時代

2006년까지 416억 투입 경영시스템 개선

지방공사 경기도 포천의료원이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으로 명칭 변경됐다.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이하 포천병원)은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이 지난 1일부터 통합운영에 따라 변경된 포천의료원의 새 이름이다.

포천병원은 "경기도립의료원 통합운영 되게 된 데는 도내 수원,

안성, 의정부, 금촌, 포천의료원의 적자폭 증가 및 경영난 악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천병원은 타 병원과 더불어 효율화와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단일공사로 운영하기 위해 ▶경영시스템 개선,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2006년까지 416억원 투입)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 병상확대,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적자폭 증가 및 경영난 악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포천시청 직원들은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및 상가주변을 청소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 집 앞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14개 읍·면·동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홍보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전과 호병천 등 주요하천과 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국토 대청결 활동을 벌였다.

이번 청결활동에는 공무원과 주민, 소방대원, 시민단체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여해 20여 톤의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질을 수거했다.

특히 이날 포천시청 직원들은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및 상가주변을 청소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장마기간 중 쓰레기가 배수관을 막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시청 앞 시가지에서 국토대청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2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임정자

체계적인 방법활동으로 활성화 도모

포천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2001년 이점희 연합대장으로 부터 창설돼, 현재 포천경찰서 자율방범대와 공조해 야간 방범 순찰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방범대이다.

지난 3월 30일 포천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한 제 3대 임정자(46·사진) 연합대장으로 부터 어머니자율방범대의 발전상을 들었다.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는 8개 대 147명의 대원이 치안보조 및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방법대는 영중, 내촌, 가산, 일동, 군내, 소흘, 관인, 포천으로 구성돼 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직제상 경찰청에 소속돼 있으며, 현재 활성화에 공조해 야간 방범 순찰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방범대와 함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임정자 회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매주 월, 수, 금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지역치안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주 업무"라며 "이밖에도 우범지역 순찰활동, PC방 청소년

들의 귀가 돌려, 학교주변 폭력 예방 활동 및 경찰과 함께 정지 선지킴이 등 각종 홍보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어머니방범대의 여건상 야간의 방범활동보다는 낮 시간의 치안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임회장은 취약한 지원에 대해 "지역의 생활안전협의회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현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만큼 지원이 미약하다"며 "어

머니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임 회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대원들에게 우선 미안하다"며 "체계적인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앞으로 현재 구성돼 있는 9개 대 이외에 관내 전 지역에



임정자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호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